테마칼럼 | 공간과 일상 | 문학의 향기 | 디자인 세상 | 과학과 경영

깡패들의 세계사

이기호

“아이들에게 만큼은 삼국지를 읽혀선 안된다 능력보다 의리, 철학보다 우정을 강조한 삼국지 세계는 깡패의 세계와 빼닮았기 때문이다”

세계에서(중국을 제외하고), 우리나라처럼 ‘삼국지’를 많이 읽는 나라가 또 어디 있을까 싶다. 어린이들은 동화로 개작된 ‘삼국지’를 읽고, 청소년들은 논술을 대비해 ‘삼국지’를 탐독하고, 어른들은 정세와 문리를 깨닫기 위해 ‘삼국지’를 펼쳐든다. 책뿐만이 아니어서, 온라인 게임에서도 ‘삼국지’를 하고, 영화도 ‘삼국지(얼마 전 적벽대전이라는 이름으로 개봉했다)’를 보고, 신문기사에서도 ‘삼국지’의 어느 구절을 자랑스럽게 인용한 문장들을 종종 만나게 된다. ‘삼국지’라곤 대학 시절 반 권 분량 조금 넘게 읽다가 때려치운 나로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문화 현상 중 하나이다.

내가 ‘삼국지’를 읽다가 그만둔 까닭은 그것이 노골적인 ‘깡패들의 세계사’였기 때문이었다. ‘삼국지’에는 숱한 종류의 깡패들이 수시로 출몰한다. 복숭아나무 아래에서 형제의 연을 맺은 유비와 관우와 장비는, 사실 깡패들이다. ‘각각 다른 날 태어났으나, 같은 날 죽기를 바란다, 우리 중 의(義)를 저버리고 형제의 정을 잊는 자가 있거든 하늘과 사람에게 함께 베임을 당하게 해달라’는 그들의 맹세는, 한때 우리 시대를 풍미했던 ‘서방파’나 ‘월드컵파’, ‘21세기 파’의 조직 윤리와 별반 다를 것이 없다. 한 마디로 모든 가치 위에 ‘의리’가 있고, 남자들의 ‘우정’이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부하 장수들을 사지로 내몰고, 가족의 희생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수시로 전쟁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이다.

지역의 깡패들이 각각의 ‘나와바리’를 사수하기 위해 ‘의리’를 강조하고, 그것 때문에 난장법석을 떤다 해도, 그 폐해는 온전히 그들 몫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한데, 나라를 세우고, 만드는 데에는 전혀 상황이 다르다. ‘국민’은 간 곳 없고 ‘의리’만 나부끼는 국가관의 폐해는, 온전히 ‘국민’의 몫으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삼국지’를 열심히 읽어서일까, 근자에도 그런 폐해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 도원결의와 비슷한 ‘6인 회’라는 것도 있었고, 고생한 ‘특보’들을 챙겨주기 위해 무리수를 두는, 자리다툼의 현장도 왕왕 목격할 수 있었다(특정 지역사람들 챙기기도 마찬가지이다). 모두 ‘능력’보다 ‘의리’, ‘철학’보다 ‘우정’을 강조한 ‘삼국지’의 세계를 쏙 빼닮아 있다(이런 ‘의리’의 세계에선 ‘내부고발자’라는 것은 아예 존재할 수 없다. 그 또한 국민의 입장으로선 커다란 손실이 아닐 수 없다). ‘국민’보다는 눈에 보이는 전적, 이를테면 ‘747’이나 ‘대운하’에 몰입하는 것도 모두 같은 이치일 터이다.

문제는 지금 자라나고 있는 아이들 또한 열심히 ‘삼국지’를 읽고 있다는데 그 심각성이 있다. 극적 사건의 전개만 따라 읽기 쉬운 아이들에게, 그 이면에 숨겨진 많은 사람의 희생과 눈물은 눈에 띌 리 만무하다. 영웅만 존재하고, 일상인들은 행간 속으로 숨어들어 간 문학. 그것을 읽고 자란 아이들이 또다시 ‘6인 회’ 같은 것을 결성하지 말라는 법은 없다.

내가 아이들에게만큼은 ‘삼국지’를 읽혀선 안 된다고 생각하는 또 다른 이유는, 그것이 ‘전쟁문학’이기 때문에 그렇다.

미국의 소설가 커트 보네거트는 ‘우리는 어떤 종류의 학살에 대해서도 분연히 반대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학살에는 좋은 학살과 나쁜 학살이 있을 수 없다. 아이들에겐 ‘반전문학’을 먼저 읽히는 것이 맞다. 거기엔 ‘의리’보다, ‘명분’보다, ‘사람’이 먼저이기 때문에 그렇다. 내가 읽다만 ‘삼국지’에는 영웅의 말발굽에 낀 때보다도 못한 민중들만, 그들의 숨죽인 목소리만 가득했을 뿐이다.

〈소설가·광주대 문예창작학과 교수〉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

사설

식품 원산지 허위표시 ‘엄벌’ 당연하다

법원이 농·축산물 등 식품의 원산지 허위표시에 대해 처벌수위를 높이는 등 엄해지고 있다고 한다. 벌금으로 대신하던 처벌이 실형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법원이 원산지 조작 행위에 강력히 대응한 것은 국민 건강권 보호 차원에서 당연한 일이다.

광주지법 문준섭 판사는 지난달 29일 미국산과 호주산 수입 고기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속여 판 정모씨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지금까지 식품 원산지 허위 표시가 대부분 벌금형에 그쳤던 것에 비해 극히 이례적이다. 문 판사는 “정씨가 범행을 자백했지만 원산지를 속여 판매한 양이 많고 기간도 길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원산지 조작 행위에 대한 법원의 엄벌 의지가 엿보인다.

우리 사회가 원산지 허위표시에 관대해 온 것이 사실이다. 올 상반기 중 광주지법의 농산물품질관리법 위반 사건 13건 가운데 1건만이 집행유예였고, 나머지 12건은 50만~500만원의 벌금형에 그쳤다. 검찰도 원산지 조작 범죄는 약식기소가 대부분이었다.

이런 ‘솜방망이’ 처벌로는 원산지 표시제가 정착될 수 없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계기로 원산지 표시제를 한층 강화하고 집중단속을 벌이고 있지만 불법유통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는 일부 악덕업자들이 적발돼도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원산지 표시제는 국민 건강권 보호뿐만 아니라 국내 농·축산물 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하지만, 원산지 표시제는 단속인력의 부족 등 현실적인 한계 때문에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원산지를 조작했다가 적발되면 ‘완전히 망한다’는 사회적 약속이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광주지법의 실형선고는 현 시국의 흐름을 잘 반영한 의미 있는 판결이었다.

미국 독도표기 ‘원상회복’은 됐다지만…

미국 지명위원회(BNG)가 어제 독도에 대한 영유권 표기를 ‘주권 미지정 지역’에서 다시 ‘한국’ 또는 ‘공해’로 원상회복했다. 독도 영유권 표기를 변경한 지 꼭 1주일만이다. 미국 정부가 신속히 원상복구를 한 것은 당연한 조치로 사태가 더 확산되기 전에 해결됐다는 점에서 다행스런 일이다.

BNG의 독도 표기 변경은 처음부터 문제가 많았다. 일본과 러시아 간의 분쟁 대상인 쿠릴열도는 ‘실효적 지배’를 인정해주면서 독도에 대해서만 이중잣대를 적용한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었다. 또한 실효적 지배국 명칭을 우선적으로 명시하는 유엔지명표준화위원회의 표기 원칙에도 어긋난다.

독도 영유권 표기가 원상회복은 됐지만 문제가 여기서 끝나는 것은 아니다. 미국은 1977년부터 독도의 공식지명을 ‘리앙쿠르암(岩)’으로 사용하는 등 인식이 변한 것 아니기 때문이다. 유럽과 중국 등 세계 각국의 지도에 독도가 아예 누락되거나 지명사전에도 독도 대신에 ‘리앙쿠르 암’이나 ‘다케시마’로 올라 있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도 직시해야 한다. 독도 문제에 대해 지금과 같이 뒷북 대처를 한다면 언제든지 뒤통수를 맞을 수밖에 없다.

독도 영유권 표기문제 못지않게 면밀하고 지속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부분이 일본의 계속되는 독도 침탈 야욕이다. 일본은 앞으로도 끊임없이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며 온갖 술수를 동원할 것이다.

문제는 우리가 이런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느냐는 것이다. 영유권 문제가 불거지고 나서야 허둥대는 등 응급처방에만 급급해선 언제든지 제 2, 제 3의 독도 파문이 재발할 수 있다.

정부는 독도를 국제사회에서 ‘분쟁지역’이 아닌 ‘대한민국 영토’로 인정받기 위한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의료 칼럼

허 정

새 생명 탄생과 의학의 발달

의학의 발달로 신의 영역인 ‘생명의 탄생’까지 인간의 힘으로 좌우하는 ‘경천동지(驚天動地)’ 할 사건이 30년 전에 있었다.

부부 10쌍 중 1쌍이 불임으로 고통받고 있었는데 세계 최초로 영국에서 시험관 아기가 탄생한 것이다. 그때만 해도 윤리·종교·사회학적인 면에서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기 충분한 사건이었다. 30년 후 전 세계적으로 7만5천명의 시험관 아기가 탄생해 사회 각 분야에서 잘 커가고 있다. 우리나라도 1984년 첫 시험관 아기의 탄생한 이래 많은 불임부부들에게 희망과 기쁨을 안겨주면서 세계적인 의학 수준으로 발돋움했다.

일부 국가에서는 대리모출산까지 허용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동물복제도 이뤄지고 있어 의학 및 생명공학의 발달과정을 지켜볼 때 인간복제도 머지않아 실현 가능하리라 생각된다. 그러나 30년 전 시험관 아기의 탄생 때처럼 종교·윤리·법률적 문제 등을 해결해야하는 과제가 남아있다.

문득 한 산모가 생각이 난다. 영광에서 세 번째 임신으로 병원을 찾은 산모였다. 출산율이 낮은 요즘 셋째를 보는 마음이 반갑기는 산모나 의사나 마찬가지였다. 산모는 진료 중 ‘전치태반’(태반의 대부분 또는 일부가 자궁입구를 덮고 있는 것)이라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결국 3개월 동안의 집중관리 속에 산모와 태아가 모두 건강하게 출산을 마쳤다.

이처럼 어떤 산모는 비정상적 임산 또는 불임으로 많은 경제적, 시간적 투자를 하고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너무 쉽게 임신과 출산이 이루어지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은 모든 임신이 정상적인 분만과 건강한 신생아를 탄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약 20%의 임산부는 유산, 사산, 기형아 출산, 전치태반, 조산, 산후출혈 등으로 고통받고 있다.

임상의학이 발달하면서 그 비율은 점점 줄어들고 있으며, 대부분의 산모는 현재도 커다란 문제없이 출산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제왕절개 수술비율이 높은 편에 속한다. 그야말로 자연분만은 자연의 법칙이고 신의 섭리인데 의학의 발달과 의료분쟁의 증가로 인해 제왕절개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의료분쟁이 많은 산부인과다 보니 자연분만을 권유하고도 원망을 듣는 경우가 있다. 산모가 힘들어할수록 그 원성은 더 커지지만, 그래도 소신을 갖고 산모와 가족을 설득해 자연분만으로 건강한 아이를 안겨줄 때의 기쁨은 이루 표현할 수 없다.

자연분만을 하겠다고 무거운 몸을 이끌고 병원을 찾는 산모를 볼 때마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의학의 발달이 어디까지 이를지 아무도 알 수 없다. 인간은 결코 자연을 거슬러서는 살 수 없으며 자연과의 조화와 적응을 통해 삶을 영위하면서 의학의 발전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광주 에덴병원 원장〉

기 고

심윤섭

일본 독도망언의 의미

미국산 소고기 수입으로 가뜩이나 나라가 시끄러운 때 일본은 지난달 14일 일본 중학교 교과서 해설서에 독도를 일본 영유권이라 표기하기로 했다. 이에 뒤질세라 미국 국립지리원은 독도를 리앙쿠르 락스(주권 미지정지역)로 표기해 버렸다. 미국 국립지리원에서 만드는 지도는 미국CIA와 국방부와 정부 관계기관의 협의에 의해서 작성된다고 한다.

역사적 문헌을 통해서나 대한민국이 수립된 이후 60여 년 동안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 한국 령 독도를 어떻게 미국정부가 일본의 독도 정책에 대해 암묵적으로 동의하는 중립적 태도를 보이인단 말인가. 말이 중립이지 실상은 일본의 독도정책을 찬성하는 꼴이다.

2차 세계대전 패망후 일본은 코가 납작하도록 미국에 알랑거리며 살기위해 갖은 방법으로 외교를 벌여왔다. 일본 주둔 미군에 일본여성들이 몸을 던져 달러를 벌어들였고 6·25 한국 전쟁으로 군수품을 만들어 경제를 재건하는데 성공했다.

이렇게 다시 일어선 일본은 한국을 식민지로 다스릴 때의 추억이 생각나 일본위정자들은 끄덕하면 신사참배와 독도망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 급기야는 일본 중학교 교과서 해설서에 독도를 일본 영유권이라고 표기하는데 이르른 것이다.

일본은 2차 대전이후 줄기차게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치밀하게 헤이그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려는 의도 아래 문헌이나 법리 상으로 법적 대응을 준비해왔다. 세계 지도에 동해를 일본해라고 표기하고 시마네현 의회는 다께시마의 날 제정 조례를 만들었다. 이제는 학생들에게 독도는 일본영토라고 가르치기 시작했다.

일본은 수십 년 전부터 치밀한 계획으로 국내는 물론 외교적인 로비를 해왔을 것이며 지금도 한국의 역사를 전공하는 전문가가 500명 이상이나 된다고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일본을 연구하는 학자가 몇 명이나 되는가 의문이다.

우리는 경제적으로 일본에 매년 300억 달러 이상으로 무역 적자를 낳고 있어서 일본 경제에 비해 경제력이 취약하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일본을 이길려면 독도망언이 나올 때마다 일본 대사관 앞에서 혈서 쓰고 시위하고 궐기대회로 해결될 일이 아니다.

정권과 정파를 떠나 정권이 바뀌더라도 학문적 법리적 외교적 논리적으로 면밀한 장기 계획을 세워 독도 지키기 실천 활동을 끊임없이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일본은 우리의 외교력이 약한 틈을 노려 강대국의 힘을 업고 독도를 빼앗으려는 술책을 보이고 있다.

미래에 또 다시 일본에게 치욕을 당하지 않고 우리 영토 독도를 영원히 지키기 위해서는 과거와 현재 외교력의 잘 잘못을 따져 다시는 실수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온 국민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치밀한 장기계획을 수립해 분야별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대응하여 영원히 우리의 독도를 지키고 일본의 망언이 허황된 것임을 전 세계 일류에게 알릴 수 있었으면 한다.

〈농촌공사 전남본부 농지은행팀 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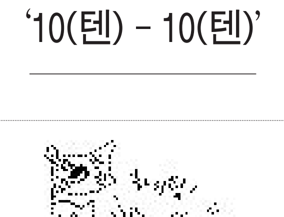
無等鼓

‘10(텐) - 10(텐)’

‘10(텐) - 10(텐)’. 오는 8일 개막하는 제 29회 베이징올림픽에 출전하는 대한민국 선수단의 목표다. 금메달 10개 이상을 따내 종합순위 10위 안에 들겠다는 것이다.

이번 올림픽은 국가별 성적 면에서 매우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지난 30여 년 동안 개방·개혁의 성공으로 경제대국의 반열에 오른 올림픽 개최국 중국은 스포츠분야에서 최초로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강을 차지하겠다는 야심에 가득 차 있다.

중국은 이전까지 러시아와 함께 스파르타식 훈련과 강인한 정신력을 바탕으로 국제 스포츠계를 리드해 왔다. 그러나 중국은 보다 세련된 모습으로 이번 올림픽을 맞고 있다. 중국은 경이적인 경제발전으로 막대한 부를 창출해 갖춘 선진 스포츠 과학 시스템을 바탕으로 올림픽 제패를 노리고 있다.



여기에다 눈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팽팽한 승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바로 개최국의 ‘텃세’다. 특히 지난 5월 발생한 쓰촨(四川) 대지진에서 보여주었던 중국인 특유의 ‘중화주의’가 올림픽에서 재연되면 승부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또 개최국은 많은 종목에서 자동출전이라는 어드밴티지를 누린다. 이와함께 개최국 선수들은 현지 기후와 음식에 가장 잘 적응돼 있어 100m 경주로 치자면 중국은 수십m 앞에서 출발하는 격이다.

대한민국은 1936년 8월 손기정이 제 11회 베를린 대회에 나라 없는 설움을 딛고 출전해 마라톤에서 금메달 따며 올림픽과 인연을 맺었다. 이후 가장 최근인 2004년 아테네올림픽에서 9개의 금메달로 종합순위 9위를 차지, 스포츠 강국의 자리를 지켰다.

베이징올림픽에서 금메달 10개 이상으로 종합 10위 안에 들겠다는 우리의 목표는 그리 녹록해 보이지 않는다. 미국을 비롯한 스포츠 열강의 치열한 다툼이 예상되고, 개최국 중국의 텃세가 도사리고 있어 대한민국 선수단이 목표를 달성한다면 큰 찬사를 받을 만한 일이다.

/박치경 체육·여론매체부장unipark@

교통사고 예방교육 농촌 학교에서도 시행을

차들이 무섭게 질주하는 학교 앞에서 교통사고가 많이 난다. 스쿨존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라 아이를 학교에 보내는 부모로써 마음이 놓이지 않는다.

방학 전에도 아내가 녹색교통봉사대로 참여해 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아이들을 보살폈지만 학교 앞 도로의 차들은 여전히 무섭게 질주한다. 아이들은 교문이나 횡단보도 앞에서 차가 자기를 위해 무조건 서 줄거라고 믿는다. 그래서 겁 없이 건너다가 과속하는 차에 사고가 난다.

며칠 전 TV를 보니까 어떤 도시의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는 막 입학한 어린이들을 위해 교통안전교육장이라는 시설을 만들어 직접 실습 체험교육 하는 것을 방송했다.

아이들은 모의 훈련장에서 직접 횡단보도를 건너보고, 차들이 오갈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실습을 했다. 또 직접 차를 가지고 실습을 했다. 신호에 맞춰 길을 건너보다 차가 급정거하자 아이들은 놀랐다. 사고 후 병원에 실려가는 것을 보면서 차의 위험성을 깨달았다.

어렸을 때 받는 이런 안전교육은 평생 그 효과가 높다고 한다. 농촌 어린이들에게도 교통사고 예방교육을 시켜줄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

▲홍예진·광주시 동구 대인동

단종된 15인승 승합차 다시 생산했으면

남편이 초등학교 앞에서 태권도장을 운영한다. 필자는 남편을 도와 학생들의 도장 왕래를 위해 15인승 승합차를 운행한다. 차가 너무 낡아 15인승 새차를 구입하려 했지만 단종됐다는 것이다.

학원의 경우 15인승이 좋다. 그래서 중고차를 알아봤다. 학원마다 중고차를 구입하려고 경쟁이 치열하다. 그러다 보니 15인승 봉고차 가격은 터무니없이 비싸다. 학원들 사이에서는 15인승 승합차는 우수 유명 강사보다도 더 귀중한 존재로 대접받고 있다.

심지어 차를 구하기 어렵다 보니 이미 낡고 고장이 잦은 노후 차를 폐차시키지 않은 채 끌고 다니는 학원도 있다. 학생들의 안전도 우려된다.

15인승 승합차는 15인 이하의 많은 사람도 태우고, 적잖은 화물도 실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래서 학원, 대형식당 등 자영업자들에게 인기다. 이를 모를리 없는 업체들이 타산이 안맞는다는 이유로 차 생산을 중단한 것은 정말 옳지 못하다는 생각이다.

자동차 회사들이 잇속만 생각할 게 아니라 소비자들의 편의를 위해 15인승 승합차를 다시 만들어 주기를 바란다.

▲이남영·광주시 서구 광천동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晧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禛榮 논설실장 金東永 편집국장 申港樂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00-551·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안내		사 회 2 부	2200-619
〈대표 FAX	222-4918〉	〈F A X	227-0118〉
편 집 부	2200-629	문화생활부	2200-626
정 치 부	2200-616	여론매체부	2200-628
경 제 부	2200-617	체 육 팀	2200-627
사 회 1 부	2200-618	사 진 부	2200-690
〈F A X	222-4267〉	조 사 부	2200-570

경 영 지 원 국	2200-511	문 화 홍 보 국	2200-54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광고마케팅국	2200-521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F A X	227-9500〉
디 자 인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